

<고전A>

A1

(1)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房(방) 안에 켜 있는 燭(촉)불 누구와 離別(이별)하였건대,
 곁으로 눈물 지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우리도 저 燭(촉)불 같아서 속타는 줄 모르는도다

1. '촛불'은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o,x)
2. 화자의 대상의 동일시를 통해 특정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o,x)
3.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o,x)
4.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2) 바람 서리 섞어친 날에

風霜(풍상)이 섞어친 날의 갓 피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盃(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의 보내오니
 桃李(도리)야 꽃인 척 마라 님의 뜻을 알겠구나

1. '풍상'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는 시어이다.(o,x)
2. '황국화'는 쟁반에 담겨 작품 전체의 주제를 환기하는 중요한 사물로 드러나고 있다.(O,X)
3. '도리'와 '국화'의 유사성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O,X)
4. 화자가 보낸 황국화는 풍설을 이겨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O,X)

(3) 국화야 너는 어찌

국화야 너는 어찌 三月春風(삼월 춘풍) 다 보내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1.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다.(o,x)
2. '한천'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속성으로 충만한 세계

를 의미한다.(o,x)

3. '한천'을 이겨내고 핀 '국화'에 화자는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o,x)

4. 자연물을 통해 몰아일체의 흥취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o,x)

(4) 오륜가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으려으나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씀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이니라.
 <제1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으리라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리로다.
 <제2수>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드셨나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나니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맙시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제4수>

[A]형님 잡수신 젖을 내 따라 먹습니다.

어허 저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
<제6수>

(나)

청천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 한양성대에
잠깐 들려 쉬어가렴

[B]여기서 저기로 갈 때 내 소식 님에게 전
하고 저기서 여기로 올 때 님 소식 내게
부디 들려서 전해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바쁘게 가는 길이니 전할
동 말동 하구나

- 작자 미상 -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슴(말씀)’이 2수부터 6수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 ② (가)의 1수에 등장하는 화자에 따르면, ㉠과 같은 사람이 만약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슴’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 ③ (나)에서 기러기는 입을 보러 가는 길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러기는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 ④ (가)의 [A]는 (나)의 [B]와 달리 시적 화자를 달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 ⑤ (가)의 2수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가)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인 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라고 좋은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2수>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자
누구의 손에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가
한 어미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탄 마음을 먹지 마
라 <3수>

- ① (가)의 3수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아는 대상들로,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화자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겠군.
- ② (가)의 3수에 등장하는 ‘누구’는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우리’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겠군.

- ③ (가)의 5수에 ‘형님 잡수신 젖을 내 따라 먹는’ 행위는 <보기>의 3수의 설명과도 같이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보기>의 2수는 (가)의 4수와 마찬가지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보기>의 3수에 등장하는 ‘탄 마음’은 (가)의 5수에 등장하는 ‘불화’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시어이겠군.

A2

(1) 까마귀 싸우는 골에

까마귀 싸우는 골에 白鷺(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새울새라.
淸江(청강)에 종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
라

- 1. ‘까마귀’는 ‘백로’와 색채 대비가 되며 동시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시어이다.(o,x)
- 2. 청강에 몸을 씻었으나 여전히 백로를 시기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화자가 비판하고 있다.(o,x)
- 3.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 4. 명령형 어투를 사용하여 권계의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o,x)

(2)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一身(일신)이 사자한이 물것 계워 못견될쵸.
皮(피)스겨갓튼 갈랑니 보리알갓튼 슈통니
줄인니 갓간니 잔벼룩 굴근벼룩 강벼룩 倭
(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毳毳(비파)갓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갓튼 등에아비 갈따귀
삼의약이 쉰 박희 높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불이 뽕족한 목의 달리 기다한 목의 야원 목
의 살진 목의 글입애 뽕족이 晝夜(주야)로 뵈
뵈 때 업시 물건이 쏘건이 빨건이 뜻건이 甚(심)
한唐(당)빌리 예셔 얼여왜라.
그 中(중)에 참아 못견딜손 六月(유월) 伏
(복)더위에 쉬파린가 하노라.

<현대어 풀이>

이 몸이 살자 하니 무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피의 껍질 같은 작은 이, 보리알 같이 크고
살찐 이, 굶주린 이, 막 알에서 깨어난 이, 작

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비파 같이 넓적한 빈대 새끼, 사령(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같은 큰 등에 각 다귀(모기의 일종), 사마귀(벼마재비), 하얀 바퀴벌레, 누런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절족 동물), 뽕룩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는 것이 당비루(피부병의 일종)보다 더 심하고 고약하구나.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뉴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노라.

1.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O,X)
2. 당비루를 만들어 내는 대상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O,X)
3. 답답한 화자의 심정을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O,X)
4.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맞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안자,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쩍 뛰다가 두엄 아래 도로 자빠지졌구나. 모쳐라 날랜 널식만정 어혈질 변하과라.

<현대어 풀이> 두꺼비가 파리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날랜 흰 송골매 한 마리가 떠 있으므로 가슴이 섬뜩하여지고 철렁 내려앉아 풀쩍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다행스럽게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동작이 둔한 놈이었다면 다쳐서 몸에 멍이 들 뻔하였구나.

1.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O,X)
2. 종장에서, 시점을 변화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O,X)
3. 대상을 희화화하여 골계적인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O,X)
4. 백송골은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두꺼비에게 두려움의 존재이다.(o,x)

A3

(1) 산천에 눈이오니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닢 있으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게 벗인가 하노라

1. '시비를 열지 않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의 이미지를 환기한다.(o,X)
2. '일편 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어이다.(o,x)
3. '눈'은 화자로 하여금 속세를 생각나도록 환기하는 시어이다.(o,x)
4. '산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장소로 현재 그곳에 가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o,x)

(2) 말 없는 청산이요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이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임즈 업슨 明月(명월)이로다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늣으리라

1. 반복과 대구를 활용하여 분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o,x)
2. '말', '태'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o,x)
3.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o,x)
4. 자연의 속성을 세속과 대조하여 예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o,x)

(3) 오우가

[38~39]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친구가 몇인가 하고 생각하니 물과 돌, 소나무와 대나무 로구나.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 또한 반가운 친구로다.
두어라 이 다섯 외에 친구가 더 있어서 무엇하리.

구름 빛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검어지는 것이 짝고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은데, 물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그칠 때가 없도다.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바로 시들어 떨어지며 풀은 어찌하여 푸르자마자 누렇게 되느냐?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이나 서리가 내려도 변함이 없느냐.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알 겠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면서

곧은 것은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어 있느냐

그러면서도 일 년 내내 푸르니 나는 대나무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밝은 빛이 너만한 이가 있겠느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친구가 될만하다.

- 윤선도, 오우가 -

1.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① 윗글은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 ② 윗글은 의문형 어투를 통해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 ③ <보기>는 애상적 정서를 담담한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는 윗글에 비해 대상의 내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우가」의 작가 윤선도는 당쟁에 휩쓸려 귀양을 갔는데, 정치와 당파 싸움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것을 지겨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시 속에서 은근한 세속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화자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작가가 지닌 세속 정치에 대한 환멸과도 관련이 있겠군.
- ② ‘달’의 덕성을 침묵이라고 판단한 것은 당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군.
- ③ 화자는 ‘꽃’과 ‘풀’을 통해 일관성이 없는 현실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군.
- ④ ‘구름’과 ‘바람’은 자연 속에 거하는 시인의 대상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물들이군.
- ⑤ 변함없거나 과묵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을 그의 ‘친구’로 삼았다는 것은 작가 역시 당파 싸움을 일삼는 속세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표현일 수 있겠군.

(4) 어부사시사

춘사(春詞) 4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

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夏詞(하사) 2

년넙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청蕩약쁘립은 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냐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臥와

와

無무心심한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秋詞(추사) 1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 生生涯에
아니러나

비 떠라 비 떠라

漁어翁을 온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芻국窓窓 至지芻국窓窓 於어思사臥
와

㉠四스時시興흥이 혼가지나 秋추江강이 은
듬이라

冬詞(동사) 4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만頃경琉류璃리 디희는 千천疊疊
玉옥山山

至지芻국窓窓 至지芻국窓窓 於어思사臥
와

仙仙界계니가 佛佛界계니가 人人間간이 아
니로다

1. 대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2. 각 장 뒤에 후렴구를 삽입하여 흥취있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O,X)
4.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하여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5. '인간'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O,X)
6. '물외'는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는 이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O,X)

(5) 귀거래 귀거래 하되

귀거래(歸去來)귀거래 하되 말뿐이오 갈 이
없네

전원(田園)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
찌 할꼬

초당(草堂)에 청풍명월(淸風明月)이 나명들
명 기다리노니.

1. 귀거래를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담겨 있다.(O,X)
2.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O,X)
3.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O,X)

4. '장무'는 화자가 전원에서 바라는 삶의 모습이 형상화된 상태를 의미한다.(O,X)

(6) 강호에 기약을 두고

강호에 기약을 두고 십년을 분주 하니
그 모른 백구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성은이 지중하시매 값고 가려 하노라.

1. '기약' 은 '성은' 을 베푸는 대상과 맺은 언약이겠군.(o,x)
2. '백구' 는 '강호' 에 머무는 화자의 행동을 비판하겠군.(o,x)
3. '분주한 십년' 이라는 용어는 '강호' 를 위해 일했던 화자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로군.(o,x)

A1- (1) x, o, o, x

- (2)X, O, X, X

- (3) o, x, o, x

-(4) 4, 2

A2 - (1) x, x, x, o

(2) O, X, O, X

(3) X, O, O, x

A3- (1) o, o, x, x

(2) x, x, o, o

(3) 5, 4

(4) O, X, O, O, X, X

(5) O, O, O, X

(6) x, x, x